

다산포럼

영감을 주는 다큐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유지나 동국대 교수

다큐멘터리가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하게 다가온다. 영화 세상으로 만나는 다큐멘터리는 표현의 자유를 먹고 사는 예술의 힘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 주는 창이다.

을 오가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게 만든다. 단출하게 한 갈래로 묶은 배열이 집편지를 안고 미소 짓는 제인 구달에게서 본받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청춘 특·특

나는 아직 어른이 되기가 두렵다



최진희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2학년

대학생이 되어 스무 살을 보낸 지금, 나는 아직도 ‘성인’이라는 두 글자가 어색하다. 스무 살이 넘었으면 성인인거지 뭐가 어색하느냐는 이야기도 듣지만 ‘성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면, ‘어른’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불이기에 어색은 두 여개가 무겁다.

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사실 나도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에 스스로 부담감을 만들어나간다.

기고

요우커와 남도 ‘싼시’



김명원 전남도 관광국장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는 2013년 432만명에서 올해는 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추계하고 있다.

이 언급한 관광자원도 전남 관광에 힘을 실어준다. 정월성, 보성녹차밭, 주자묘를 언급하고 나서 추가한 것이 여수국가산단입지의 야경이다.

청춘특·기고 환영합니다

청춘특·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社說

새정치 당권 경쟁, 호남정치력 복원 기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됨에 따라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끊임없는 계파싸움과 비전 없는 정치늬움, 호남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광주과학관 시민 상대 돈벌이 해서야

국립광주과학관이 ‘국립’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관람객들에게 비싼 체험료를 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소되기 일쑤다. 재료비와 감사료 등의 지출로 인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無等鼓 (No Equal Drum) advertisement for a performance project. Includes text about the project's purpo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Bungy@.

Table with 2 columns: Light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subscriptions and advertising.